

“한일전 3-1 제압”...한국, 亞 청소년탁구 여 U-15 우승

아시아 유스 챔피언십 단체전 1위...세계 유스 챔피언십 출전권 획득
허예림 2승·이혜린 1승...남자 U-19 대표팀 중국에 1-3 패 준우승 차지

한국 15세 이하(U-15) 여자탁구 기대주들이 제 29회 아시아 유스 챔피언십에서 한일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한국은 28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대회 U-15 여자단체전 결승에서 허예림(화성도시공사)과 이혜린(호수돈여중), 김민서(청양군탁구협회)를 앞세워 일본을 3-1로 꺾었다.
이로써 한국 여자 U-15 대표팀은 올해 세계 유스 챔피언십(11월 23~30일·루마니아) 출전권을 획득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충칭에서 열린 작년 대회 때는 19세 이하(U-19) 부문에서 남자 단체전 은메달, 여자 단체전 동메달, U-15 부문에서 남자 단체전 동메달을 수확하는 데 그쳤다.
여자 U-15 대표팀은 작년 대회 때 대만과 8강전 패배로 준결승에 오르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에선 값진 단체전 우승을 이뤄냈다.
한국은 준결승에서 싱가포르를 3-0으로 완파한 뒤 4강 상대 중국을 3-0으로 꺾은 우승 후보 일본과 맞닥뜨렸다.

1매치에 나선 이혜린이 일본의 무라마쓰 고코나를 3-2로 돌려세우며 기선을 잡았다.
이어 에이스 허예림이 이시다 고코미와 2매치를 3-0으로 따냈고, 매치 스코어 2-1에서 맞은 4매치에서도 무라마쓰 고코나와 3-2로 눌러 혼자 2승을 책임지며 우승에 앞장섰다.
그러나 결승에 올랐던 남자 U-19 대표팀은 김가운(한국거래소)과 최지욱(대광고), 권혁(대전동산고)을 내세웠지만, 중국에 1-3으로 져 아쉬운 준우승에 그쳤다.
한국은 김가운이 첫 매치에서 중국의 쑹양을 3-1로 꺾으며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권혁이 웬루이 보에게 2매치를 1-3으로 패했다.
이어 3매치의 최지욱이 풀게임 대결 끝에 리허천에게 2-3으로 내줬고, 4매치에 다시 나선 김가운이 웬루이보에게 1-3으로 져 매치 스코어 1-3 패배가 확정됐다.
에이스 이승수(대전동산중)를 앞세운 남자 U-15 대표팀도 단체전 준결승에서 인도에 1-3으로 져 공동 3위에 주는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



여자 탁구 기대주 허예림의 경기 장면.



여자 U-15 단체전에 나선 이혜린의 경기 장면.

‘초신성’ 김영원 vs ‘백전노장’ 김정규, PBA 세대 초월 맞대결



김영원



김정규

7월 2일 128강전

지난 시즌 프로당구 무대에서 역대 최연소인 17세로 우승을 차지했던 ‘초신성’ 김영원(하림)이 자신보다 47세가 많은 백전노장 김정규(64)와 프로당구 무대에서 맞붙는다.
프로당구협회 PBA가 29일 발표한 2025-2026 시즌 2차전 하나카드 PBA-LPBA 챔피언십 대진표에 따르면, 김영원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PBA 128강전에서 김정규와 대결한다.
김영원은 프로당구 1부 투어 최연소 선수이며,

김정규는 최고령이다.
김영원은 지난 시즌 6차 투어인 NH농협카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김정규는 1998 방북 아시안게임 당구 3쿠션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개막전인 우리금융계피탈 챔피언십 PBA 우승을 차지한 튀르키예 출신의 무라트 나지 조를루(하나카드)는 이번 대회 128강전에서 차경화를 상대하며, 준우승자인 ‘스페인 전설’ 다니엘 산체스(웰컴저축은행)는 이영민과 대결한다.
개막전에서 부진했던 강호들은 이번 투어에서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슈퍼팬’ 조재호(NH농협카드)는 이강욱을 128강에서 만나며, ‘헐크’ 강동궁(SK렌터카)은 이승혁과 격돌한다.
지난 시즌 월드 챔피언십 우승자 세미 사이그너(튀르키예·웰컴저축은행)는 김성민을 상대한다.
PBA 128강에 앞서 29일에는 여자부 LPBA PPQ(1차 예선) 라운드도 진행된다.
김가영(하나카드), 김민아(NH농협카드), 차유람(휴온스) 등 최근 10개 투어 합산 랭킹포인트 1위부터 32위는 시드 자격으로 예선 라운드를 치르지 않고 64강에 선착했다.

/연합뉴스

“생활체육으로 하나 되다”...전남 스포츠클럽 체육대회 성료

전남 36개소 1000여명 참가

‘제1회 전남 스포츠클럽 체육대회’가 28일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전남체육회가 주최하고 목포 스포츠클럽과 전남 회원 종목 단체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남 36개소 스포츠클럽(종합형 19개소, 한 종목형 17개소)에 소속된 1000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이 참가했다. 이들은 배드민턴, 야구, 축구, 탁구, 파크골프 등 5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전남 최초의 스포츠클럽 종합 체육대회인 이번 행사에는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참여했으며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으로 연계되는 ‘전남형 체육 선순환 시스템’의 시발점이 됐다.
송진호 전남체육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

회는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스포츠를 매개로 하나 되는 전남형 스포츠문화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더 쉽고 즐겁게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광주 출신 손현호, 전국역도대회 3관왕



남자 일반부 81kg급 인상 152kg·용상 196kg·합계 348kg

광주 출신 손현호(국군체육부대·사진)가 전국 역도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지난 27일 강원 양구에서 끝난 ‘제97회 전국 남녀·녀역도선수권대회’에서 손현호는 남자 일반부 81kg급 경기에서 인상 152kg, 용상 196kg, 합계 348kg을 들며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손현호는 인상에서 1차시기에 152kg을 들어올리며 1위를 차지했다. 용상에서는 2차시기까지 195kg을 들어올린 뒤 무게를 더해 3차시기에서

196kg을 들어올렸다.
손현호는 합계 348kg으로 1위에 등극했다. 2위에는 정한솔(아산시청)이, 3위에는 박주호(고양시청)가 이름을 올렸다.
송정중과 정광고를 졸업한 손현호는 군입대 전까지 4년간 광주시청 소속으로 활동했다. 손현호는 지난달 아시아역도선수권 대회에서 용상 금메달, 인상과 합계에서 각각 동메달을 얻어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발레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해설이 있는 발레'

일시 / 장소 :
2025-06-14(토) 16:30, 19:00 / 상무시민공원
2025-06-21(토) 16:30, 19:00 / 생암리권공원
2025-06-28(토) 16:30, 19:00 / 상무시민공원
2025-07-04(금) 19:00 / 교통문화연수원
문의 : 062-522-8716
*우천 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GAC 공모전시
별의 항해 : 오혜성 개인전

일시 : 2025-06-05(목)~2025-07-06(토)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